

**동우컬럼**

고진감래(苦盡甘來)

나는 가끔 성경을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영상화해본다.

요셉의 일생도 스크린의 한 장면처럼 상상해본다. 요셉이 국무총리 대신이 되어 잠시 망중한을 즐기며 생각에 잠긴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요셉은 감회에 젖어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한다. “그때는 그렇게 아프고 힘들더니, 지나고 보니 그것도 아름다운 추억담이 되는구나.”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 팔아 노예로 살던 시절,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힌 일, 술관장과 떡관장의 꿈을 해몽해줬던 은혜를 잊은 2년의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2인자가 된 일,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과의 재회... 이런 순간순간을 곱씹으며 눈물도 짓고, 씩씩한 웃음도 짓는다. 그러나 결국 아름답고 달콤한 현재에 감사한다.

나도 가끔 내 추억을 끄집어낸다. 지금이야 추억이지만, 당시는 너무 쓰고 아팠던 기억들이다. 예수를 믿고 난 후 가족과의 불화, 교단으로부터의 제명, 온갖 핍박과 모욕, 성전 없이 떠돌아다니던 세월, 그러나 지구를 150바퀴 이상 돌며 복음을 전한 일... 고진감래라더니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 같았던 시절을 마감하고, 이제는 서울 성전 입성이 계획되니 감회가 새롭다.

고진감래(苦盡甘來)란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이다. 성경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라는 말씀으로 대치된다.

겪고 보니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과정
이고, 훈련이더라. 대를 이을 자식은 강하
게 키워야 하니까.

그러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찌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30:5)라는 말씀처럼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오듯 고난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순간이 온다. 그때의 달콤함을 어디에 비교하랴.

신앙의 길도 험작하여 고되나 그날의 기쁨이 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8:18).

기억하라. No Cross, No Crown!

TV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 우리는 지붕 위에 안테나를 달아야 TV 방송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안테나가 바람에 흔들려 각도가 틀어지면 TV 방송을 볼 수 없을 때가 많았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비유이다.

“라디오나 TV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방
송을 내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방송 주
파수나 채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방
송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
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
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파수
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
해 소경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꿈을 꾸고도 깨닫지 못하고, 꿈의 계시를 무시하다가 고통과 멸망의 길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역시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라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29:11~13). 그래서 목사님

다시 말씀하시되 심지어 침상에서 졸거나 깊이 잠들었을 때조차 꿈을 통하여, 이상을 통하여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자듯 교훈하십니다. 꿈의 계시는 성경에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술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 했던 아비멜렉 왕부터 예수님 탄생 비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무시한 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통을 당하고, 빌라도처럼 저주를 받았지만, 꿈을 깨달은 자들은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처럼, 마리아의 남편 요셉처럼, 동방박사들처럼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나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꿈



2018년 6월, 한국을 찾은 베트남 목회자들(예루살렘 기도원)

하나님의 종이란 자가 소경이니 예수님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구렁이에 빠질 뿐입니다 (눅6:39).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구렁이에 빠지거나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심지어 꿈이나 이상 중에 인치듯 교훈하신다고 율기서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훈으로 구렁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욥33:14~18).

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이다.

“부모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그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도 그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더군요. 듣고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대제국을 호령한 자이었지만, 스스로 교만하여 다니엘이 풀어준 하나님의 꿈을 무시했다가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무리 속에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7년을 고생고생한 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목이 다니엘서 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으로 계시한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는 꿈의 계시를 무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았 습니다. 나 자신이나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시하셨고, 나는 그 계시대로 순종했 습니다. 베트남의 그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와 나를 초청했지만, 꿈의 계시가 있었기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2026년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

* 일시 : 2026년 1월 26일(월)~28일(수)
* 대상 : 목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
* 장소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4:12)

당신 삶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롤모델’이란 뭔가 모범이 되어 닮고 싶고, 모방하고 싶은 인물일진대, 당신은 누구를 롤모델 삼아 살고 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롤모델 삼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롤모델 삼았습니다. 엘리사의 롤모델은 엘리야였고, 디모데의 롤모델은 바울이었습니다. 클린턴이 케네디 대통령을 롤모델 삼았고, 오바마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롤모델 삼았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는 모세와 엘리야, 바울을 롤모델 삼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상고하다 보니 ‘내 삶의 롤모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롤모델 삼으면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롤모델만 정해놨다고 닮는 건 아닙니다. 롤모델을 따라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닮은꼴은 시간과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닮은꼴은 시간과 정비례한다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인가

저는 예수님이 롤모델이 된 후에 그분을 따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나를 따라 하면 너도 나 같은 일을 하고, 더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니 더욱 노력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장 힘썼던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십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마4:2). 그리고 예수님은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막1:35). 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서 저녁에 기도하셨고(눅5:16), 또한 12제자를 뽑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며(눅6:12),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애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눅22:44).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인자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눅23:34).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친 것입니다. ‘아~~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의 일생을 살아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 기도를 기본으로, 집회 때면 7~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떠나듯, 저를 보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니 병이 나음을 입듯, 제가 안수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더욱 모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막7:33~35). 예수님처럼 저도 귀

먹고 병어리 된 자들에게 먼저 예수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난 다음, 입에 손가락을 넣고는 “에바다”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비위생적인데 왜 그러냐고 하지만, 관계없습니다. 제 롤모델인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입이 풀려 병어리가 말을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엘리야를 롤모델 삼은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가 겹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왕하2:8).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한 그대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겹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니이까”(왕하2:14)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능력은 저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 그분처럼 기도하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

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받은 성령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인지라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돈은 아이가 갖든 어른이 갖든, 배운 사람이 갖든 동일한 가치를 발하지 않습니까? 또 누구든 총의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도

를 보 면 오직 ‘순종’ 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고난의 아픔을 짐작하여 피하고 싶으셨으나 그럼에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6~8). 저는 롤모델 예수님을 모방하여 오직 ‘엿셀’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300억을 거절하고 올림픽공원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도, 일본집회를 갈 때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도, 핍박과 모함에 힘들어할 때 맞대응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도, 낯설고 물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도... 저는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 했습니다. 왜냐?

제 롤모델이신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빌2:9~10), 저도 세계적인 전도자로서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요일4:8).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품으셨고, 병든 자를 피하지 않고 고치셨으며, 가난한 자의 곁에 머무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까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힘들어도 다 안수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베풀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을 모방하면 똑같이 성공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롤모델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인생의 꺾대’로 놓고 닮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11:1).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 삼고 살았다. 너희는 그런 나를 롤모델 삼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오직 예수를 닮으려고 죽도록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나를 닮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말에 반감을 갖는 자들도 있지만, 그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닮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너희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2:6~7). 주 안에서 뿌리를 내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면, 즉 예수님이 나의 롤모델이 되시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추방하여 우리 삶이 천국이 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이십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영적 불안정성에서 벗어나라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은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닭은 알을 19일 동안 계속 품는데, 품고 있는 동안 어미의 열이 그 알에 가해진다. 이렇게 19일 동안 품으면 알은 따뜻해지지만, 어미 닭이 내려오면 금방 식어버린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20일째 되는 날, 새끼는 그 알을 깨고 나오는데 그 순간부터 자열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처럼 알을 깨고 나와야만 비로소 그 병아리는 어미 닭과 같은 자열이 일어나고, 자열이 일어나야 어미 닭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눅1:15)라고 했다. 이는 성령이 마치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성령이 충만하게 위에서 역사했다는 뜻이다. 그런 반면 예수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14:17)고 말씀하셨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마11:11)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경건하거나 훌륭하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는 모태로부터 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마치 어미 닭이 위에서 품어 가열되어 유지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므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신앙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속에 있는 의지, 자기 속에서 밀어내는 힘에 의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모세 한 명에 이끌려 광야로 나온 것이다. 그 후 그들은 모세가 사라지자 우상숭배까지 하며 결국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지금 우리 믿음은 누구 한 명에 의해 이끌려 나오는 신앙, 마치 어미 닭이 그 알을 품어서 겨우 유지되고 있는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내 속에서부터 증거를 받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요14:12.)

신기류 목사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당신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외제차 딜러로 일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종종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고민 끝에 사표를 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새 직장에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몇 주 뒤, 지인의 소개로 H자동차 대리점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내내 청년은 속으로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하기에 근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팀장은 자신도 교회의 장로라며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청년은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 직장에서 몇 달이 지났지만 판매 실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 필리핀 단기 선교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어 온 꿈이었지만, 저조한 실적 탓에 직장에서 휴가를 신청할 상황도 아니었고, 금전적으로도 여의찮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마저 “지금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어디를 가느냐?”며 만류했습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부정적인 말들 앞에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청년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잠하던 자동차 구매 문의가 잇따라 들어오기 시작했고, 청년은 그달에 무려 열두 대를 판매하며 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당히 휴가를 내어 선교를 갈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쁨으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눈 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김진실 사모

:: 책을 펴다 ::

바람이 불 때 연을 띄우라

아무리 연을 날리려고 달음박질쳐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힘만 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순풍이 불어올 때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줄만 당겼다 늦췄다 하면서 멋지게 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중심교단은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꾸미지 않은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고, 그 인도함 따라 지금까지 순항해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갈 신앙의 원칙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나 꾀, 인간의 조급한 생각이 아니라 오직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교회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비록 느린 것 같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가장 절정임을 압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면 흥

해를 가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니 순식간에 갈라졌습니다. 메추라기를 사람이 잡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 순간 잡혔고, 이빨에 낄 정도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말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신앙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진행할 때든지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원칙을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아픔이 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요. 할렐루야!

이초석 목사 저서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서 지휘봉을 뺏아라’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합심기도의 힘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반에 구역예배를 드린다. 매일 저녁기도회가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특별히 교회와 각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놓고 일꾼들이 모여 합심기도를 하는 날이다. 환자들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을 위해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한다. 늘 말씀하시듯 총회장 목사님의 꿈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통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육체가 기쁨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셔서 2026년에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쁨지게 해보자’고 슬로건을 정하고, 현수막을 걸고, 달력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다. 병든 자를 대하는 주의 종의 마음도 이러할진대, 우리 질병을 위해 독생자를 찢고 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우리는 꾸준히 합심기도를 했다. 역시 합심기도의 힘은 엄청나게 컸다. 그중 한 분은 척추 협착증으로 걸음을 못 쉴 정도로 아프셨는데,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나중에는 교회를 못 나오실 정도였다. 그런데 합심기

도로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이제 걸음을 아주 잘 걸으셔서 집에서 교회까지 혼자서도 잘 걸어오신다. 할렐루야! 나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신년 첫 주일예배를 준비하면서, 2023년 7월 20일부터 문산교회 성전 전면에 걸려있었던 ‘서울성전건축을 위한 40일 작정기도’ 현수막을 떼어내었다. 2025년 12월 9일, 광야 생활 41년 만에 12,000평의 서울 성전 부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서울 성전 건축의 첫발을 내딛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도 2025년 1월 2일부터 시작된 노랑진 기도처에서의 합심기도의 위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뿐인가.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지난 한 해도 복음 전파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오셨다. 특히 9월 엘살바도르 집회를 앞두고 큰 위기를 겪으셨지만, 결국 성령의 대역사를 일으키시고 무사히 귀국하셨다. 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합심기도의 힘이다. 삼겹줄이 강하듯이 합심기도의 힘은 이렇게나 크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18:19).

장순천 목사

:: 간중 ::

:: 참된 깨달음 ::

장로님의 마지막 소원은 성전건축



故 유무종 장로

박금석 권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성공회를 20여 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정신병이 심해지자 성공회 신부님이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권유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갑자기 예전에 이웃에 사는 우리 교회 권사님의 인도로 잠실체육관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서 예수중심교회에 가야 산다는 생각에 발에서 일하다 말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박 권사님 가족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귀신 쫓는 교회 가야 산다’는 생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셔서, 권사님의 믿음을 보고 병원에 같이 가서 아들을 퇴원시켜 왔는데, 그 당시 불신자였던 장로님은 아들의 병으로 인해 매일 술과 담배, 그리고 두통약을 쌓아 놓고 살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의 부탁으로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전등이 꺼져서 나가보니, 장로님이 술 먹고 와서 예배를 못드리게 하려고 밖에서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붙잡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부터 술

을 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담배도 끊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교회에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 귀신이 아들을 산으로, 들로 끌고 도망 다니게 하고, 부모를 폭행하는 등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달려가서 도망간 아들을 붙잡아 다 놓고 기도하기를 수없이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권사님께서 포기하고 다시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해서, 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정신병원에 보내고 나면 우리가 지금처럼 간절하게 기도가 되겠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시 기도로 고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기도한 지 45일 만에 아들이 정신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술과 담배는 끊었지만, 두통 때문에 진통제로 입에 달고 살았는데, 장성기도원 집회 가서 흰옷 입으신 분이 머리를 수술해 주는 꿈을 두 번 꾸고는 두통도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아들이 정신질환에서 고침받고, 술꾼이었던 장로님은 구원받고, 두통에서 치유를 받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성전 건축 기초로 쓰라고 밭 640평과 축사 200평을 성전 건축 부지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분들은 피택 장로와 권사 직분을 받아 온 가족이 20여 년을 새벽기도, 주일, 수요, 금요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간 한 번도 병원에 간 적 없으신 장로님이 코로나로 폐 기능이 약해져 폐렴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그날부터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140일 동안 매일 중환자실 면회 가서 기도해 드리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합심기도를 했습니다. 장로님은 4개월 넘게 중환자실에서 콧줄로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호흡기

를 코에 걸고 지내는 힘든 상황인데도, 놀라운 것은 매일 물어봐도 힘들지도, 아프지도 않고 항상 천사랑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권사님께서 집에서 작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셔서 예배를 드리던 중,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며 눈을 팔아서 성전 건축하자고 해서, 면회 가서 장로님의 의향을 여쭙보니 장로님도 성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라며 논 1,600평을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겠다고 유증을 하였고, 이를 총회장 목사님께 보고하고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를 후 장로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가족을 위로해 드리라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계 14:13)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후일을 예비하고 가셨구나’ 하는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도 장로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나님께 다 드리고 후일을 준비하고 가셨다며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장로님은 오직 성전 건축이 소원이었고, 밭 640평, 축사 200평, 논 1,600평 등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 병상에서도 교회 성전 건축만 소원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로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후일을 예비하는 참 지혜로운 분’임을 깨달았고, ‘나는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갈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할 일이 따름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후일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강화 예수중심교회 박화평 목사

Good News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는 문구를 응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평화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참 평안이 없고, 항상 불

안한 가운데서 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 잠깐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어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가 있습니다. 평화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려고 유토피아 건설을 꿈꾸지만 부질없는 망상입니다. 참된 평화는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만 주시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2026년 결산 때를 대비하며

예전에는 연례행사처럼 12월만 되면 여러 쇼핑몰을 검색하며 새 다이어리를 구매하곤 했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난 계획들을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계획과 실행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었습니다.

언젠가 총회장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며 새해의 의미는 없다. 고착된 사고를 버리고 구습을 잘라버려라. 영적 개선,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 심령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후회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영적으로 개선하고 갱신하는 ‘기경’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매년 연말, 연말 결산 영상을 통해 총회장 목사님의 발자취를 보며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의 1년을 영상으로 만든다면 과연 무엇을 담을 수 있을지 자문해 봅니다. 부끄럽게도 떠오르는 장면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을 보며 깊은 회개와 도전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6년의 삶의 지표는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쁨지게 해보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을 기쁨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과거의 저라면 직장에서의 인정과 승진, 건강과 부요함 등을 먼저 떠올렸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수원교회 김진 담임목사님은 늘 저에게 물으십니다. “거룩한가? 의로운가? 진실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가? 기도하고 귀신을 얼마나 쫓는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성령 충만한가?” 사명자라면 신학생 시절부터 기도와 말씀이 전제되지 않는 사역은 근본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준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라는 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제가 선 바로 이곳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야말로 진정으로 내 땅을 기쁨지게 하는 것이며, 지경에 지경을 넓히는 일임을 믿습니다.

2026년 결산 시기에는 후회가 아닌, ‘해냈다는’ 성취감과 기쁨의 탄성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결과를 맺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님 앞에 엄숙히 결단해 봅니다.

양은정 생도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여보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아닌가?
한 장의 벽돌이 쌓여 빌딩을 이루고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자고로 노력하는 자를 따를 수 없는 법
매사 최선을 다하면 영광된 날이 있다네
최고가 되려면 최선을 다하게

朋友